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목표개념 분석

강 신 복
(체육교육과)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체육의 궁극적인 주요목표 중의 하나는 평생동안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는 운동참여에의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체육은 이러한 태도를 올바르게 형성시키고, 평생동안 지속하도록 하는 교량적인 단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은 이와 같은 체육의 궁극적 목표를 함양토록 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학교체육은 우수선수 육성위주와 입시 체력장 준비를 위한 체력연습위주로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학교체육은 주지 교과 위주의 입시교육, 시설·용구의 부족, 재정의 부족, 교사의 자질부족, 그리고 행정부재 등과 같은 여러 외재적 제약과 문제로 인하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지 못해 왔다는 점이다.

학교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부딪치는 제약과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외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내재적 측면에서도 아울러 발견할 수 있다. 교육과정운영의 내재적 측면에서의 제약과 문제를 강신복(1985a)은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으로 보고 그 제약과 문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즉, 체육목표는 내재적(본질적) 목표와 외재적(비본질적) 목표 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하는가의 문제, 체육교육과정의 목표와 구성내용에 있어서 명시적 목표(명문화된 목표)와 암시적 목표(잠재적 목표)의 대립과 조정의 문제, 체육학습 내용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연계성 특히 계열성의 문제, 그리고 체육교육은 결과중심으로 교육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과정중심으로 지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매력있는’ 체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문제와, 학습지도 및 평가방법의 확일성 문제 등이다.

교육과정운영의 내재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의 결정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Goodlad(1979)는 교육과정을 결정수준에 따라 형식적 교육과정, 실천적 교육과정, 경험적 교육과정, 그리고 인지적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형식적 교육과정은 문교부나 관련기관에서 개발된 문서상의 교육과정으로, 문교부 교육과정,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세부지침, 교과서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시말하면, 학생들이 학습되어야 할 일련의 학습활동을 체계적으로 정선하고 조직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포한 문서화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실천적 교육과정은 현장 학습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상태, 주로 각 학교의 행정가, 지도교사,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관찰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쉽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차적인 관심은 학교행정 책임자와 교과담당 지도교사가 교수활동과 관련시켜 어떻게 교육과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실제로 느끼고 이해되는 학습경험으로, 이 교육과정의 관심영역은 학습자의 내재적이며 잠재적 측면을 주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교과내용, 교사, 기타 여러 교과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 교육과정은 교실(수업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쳐 왔던가에 대한 교사의 지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학교상황에 대한 교사들의 지각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가치와 경험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Ennis, 1985). 이렇듯, 학교 각 교과의 교육과정은 하나이지만 누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영역은 달리 구분지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의 영역들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밀접한 상보적 관계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교육과정 영역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야만 교육과정의 합리적인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영역의 연구와, 영역간 관계규명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왜냐하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적 의도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으며,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측한대로의 학습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는 그 원인이 비현실적인 의도속에 있는 것인지, 또는 그릇된 지도방법속에 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행 체육교육과정 운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체육교육과정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영역들 중 1개 내지 2개 영역에 국한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다(김종선, 1980; 고흥환 외 2인, 1982; 정미례, 1983; 유정선, 1987; 박명기, 1990; Bain, 1976; Wang, 1977; Kollen, 1981; Griffin, 1983). 이러한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교육과정 현상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미파악과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육과정의 단편적인 연구접근을 지양하고, 교육과정과 관련

된 문제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교육과정 연구가들은 그동안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결하여 왔다. 즉, 교육과정 영역들 중 한 두 가지에 의존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해 왔다. 이러한 연구접근은 복잡하고 다변적인 교육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과정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은 정치지도자·교육행정가·교사·각종 압력단체·학부모·학생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이 결정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정수준에 의한 교육과정 영역들이 각기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oodlad(1979)가 결정수준에 따라 분류한 교육과정 영역을 Jewett과 Mullan(1977)이 제안한 목표개념으로 분석하여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한다.

둘째, 실천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한다.

셋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한다.

(1) 성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한다.

(2) 학년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한다.

네째,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한다.

(1) 성에 따른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한다.

다섯째, 형식적·실천적·경험적·인지적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활용된 각 교육과정 영역별 분석문헌과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교육과정

체육관련 문헌자료 중에서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1종, 문교부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해설 1종, 고등학교 검인정 체육교과서 6종,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 2종으로 총 10개 문헌을 임의·선정하였다.

〈표 1〉 교육과정 영역별 연구대상수

| 유 형 | 실천적 교육과정 | | | 경험적 교육과정 | | | 인지적 교육과정 |
|--------|----------|----|----|----------|-----|-----|----------|
| | 학 급 | | | 학 생 | | | 교 사 |
| | 1년 | 2년 | 3년 | 1년 | 2년 | 3년 | |
| 남 | 3 | 3 | 3 | 118 | 117 | 120 | 51 |
| 여 | 3 | 3 | 3 | 119 | 119 | 119 | 12 |
| 계 | 18학급 | | | 712명 | | | 63명 |

(2) 실천적 교육과정

서울시내의 22개 구청 중에서 임의선정된 강동구청, 관악구청, 성동구청, 용산구청의 각 구청에서 남녀 1개교씩 총 8개교를 무선표집하였다. 표집한 8개교에서 각 학년의 1학급씩 총 24개 학급수업을 관찰한 결과, 본 연구의 자료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18개 수업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3) 경험적 교육과정

실천적 교육과정의 연구대상으로 무선표집한 학급에서 해당 출석번호 중 홀수번호 학생 30명을 선정하였으며, 검사에 충실히 응한 712명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4) 인지적 교육과정

표집된 8개교에 재직하고 있는 체육교사 전체와, 1990년도 서울대학교 1급 정교사 연수에 참가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체육교사 중에서 검사에 충실히 응한 63명의 현직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2. 자료수집의 방법 및 도구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영역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수집방법 및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교육과정

교육현장에서 전개되거나 실천되기 이전의 하나의 「교육적 의도」로써 머물러 있는 문서화된 학습과정의 계획인 형식적 교육과정의 자료수집은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기준 및 분석체계는 체육문헌의 일반목표와 단원목표를 대상으로, 목표개념의 출현여부를 문서별로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 7개 이상(전체 2/3이상)의 문서에 나타난 목표개념을 형식적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실천적 교육과정

교육현장의 실제 수업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상태를 뜻하는 실천적 교육과정의 자료수집 방법은 비참여관찰이다. 관찰기준 및 분석체계는 수업상황에서 교사의 의

〈표 2〉 Jewett과 Mullan(1977)의 목표과정중심 교육과정 개념틀(Purpose-Process Curriculum Framework: PPCF) 목표개념

| 핵심개념 | 주요개념 | 개념요소 | 문항 |
|---------------------------------------|--|---------------------------------------|----|
| A. 개인적 발달 (Individual development) | 가. 생리적 효율성 (physiological efficiency) | 심폐효율성(circulo-respiratory efficiency) | 1 |
| | | 기계적효율성(mechanical efficiency) | 2 |
| | | 신경근육효율성(neuro-musculare efficiency) | 3 |
| | 나. 심리적 안정 (psychic equilibrium) | 움직임의 즐거움(joy of movement) | 4 |
| | | 자기이해(self-knowledge) | 5 |
| | | 감정의 정화(catharsis) | 6 |
| | | 도전(challenge) | 7 |
| B. 환경의 극복 (Environmental coping) | 다. 공간적 지향 (spatial orientation) | 인지(awareness) | 8 |
| | | 이동(relocation) | 9 |
| | | 관련성(relationship) | 10 |
| | 라. 물체 조작 (object manipulation) | 중량처리(maneuvering weight) | 11 |
| | | 물체투사(object projection) | 12 |
| 물체수용(object reception) | 13 | | |
| C. 사회적 상호 작용 (Social interaction) | 마. 의사소통 (communication) | 표현(expression) | 14 |
| | | 명료화(clarification) | 15 |
| | | 의태(simulation) | 16 |
| | 바. 집단상호작용 (group interaction) | 팀워크(teamwork) | 17 |
| | | 경쟁(competition) | 18 |
| | | 지도성(leadership) | 19 |
| | 사. 문화적 참여 (cultural involvement) | 참여(participation) | 20 |
| 움직임 평가(movement appreciation) | | 21 | |
| 문화이해(cultural understanding) | 22 | | |

도적이며 비의도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설명이나 학생의 행동, 그리고 수업분위기를 규정하여 PPCF 목표개념과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면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 12개 이상(전체 2/3 이상)의 수업에 관찰된 PPCF 목표개념을 실천적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경험적·인지적 교육과정

학생이 수업상황에서 실제로 느끼고 이해되는 학습경험의 경험적 교육과정과, 교육자가 수업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쳐 왔던가에 대한 지각으로 구성된 인지적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인 설문지는 PPCF의 22개 목표개념 요소를 토대로 Steinhart 등(1988)이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목표를 조사하기 위해 개발했던 “체육활동참여목표”를 참고로 하여 박명기(1990)가 개발한 “체육목표 인식도검사 설문지”에 근거한 것이다.

① 질문지의 구성

질문지의 항목들은 목표과정중심 교육과정 개념틀(Purpose-Process Curriculum Framework

: PPCF)의 22개 목표개념 요소에 근거한 것이다(표 2). 이 PPCF 목표개념은 Jewett과 Mulla(1977)의 목표과정중심 교육과정 개념틀 중, 목표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인간의 움직임활동이 어떻게 기여하고 관여하는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 발달, 환경의 극복,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3가지 핵심개념으로 구성된다. PPCF는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고 다변적인 학습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정목표의 다양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3가지 핵심개념은 다시 움직임 기능과 관련하여 생리적 효율성, 심리적 안정, 공간적 지향, 물체조작, 의사소통, 집단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적 참여라는 7가지 주요개념과,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자기이해, 감정의 정화, 도전, 인지, 이동, 관련성, 중량처리, 물체투사, 물체수용, 표현, 명료화, 의태, 팀웍, 경쟁, 지도성, 참여, 움직임, 감상, 그리고 문화이해라는 22개 개념요소로 세분된다.

② 질문지 응답과 회수

본 연구자가 대상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한 후, 체육교사와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질문지의 각 문항에 응답토록 한 후 회수하였다(회수율: 99%). 질문지 응답방법은 Likert의 9단계 평정척도방법을 이용하여 체육목표에 대해 교사가 인지하고, 학생이 경험한 정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질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질문지는 박명기(1990)가 개발한 “체육목표 인식도 검사 설문지”의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질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는 박명기(1990)에 의해 타당도(Delphi기법)와 신뢰도(Cronbach's $\alpha=.81$)가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였다.

3. 자료처리방법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영역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해 통계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형식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출현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실천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출현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3)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① 성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② 학년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가 검증되었을 경우 Schéffe검사를 수행하였다.
- (4)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① 성에 따른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을 분석하여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을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체육교육과정 영역별 목표개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분석

체육문서에 존재하는 PPCF 목표개념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인지, 이동, 관련성, 중량처리, 물체투사, 물체수용, 표현, 명료화, 팀워크, 참여, 그리고 움직임 감상의 목표가 분석된 모든 교육과정문서(100%)에 나타났다. 그리고 도전, 의태, 경쟁 목표는 9개 문서(90%)에, 자기이해와 문화이해 목표는 8개 문서(80%)에, 감정의 정화 목표는 7개 문서(70%)에, 그리고 지도성 목표는 3개 문서(30%)에 나타났다. 즉, 지도성 목표개념은 고등학교 체육문서에서 강조되지 않는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형식적 교육과정에서는 PPCF 목표개념의 출현유무에 대한 백분율이 66%인(전체 2/3일 이상)일 경우 출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지도성 목표를 제외한 21개 목표개념이 출현하였다.

2. 실천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분석

교육현장의 실제 수업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체육목표를 살펴보기 위해 18학급의 체육수업에 존재하는 PPCF 목표개념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결과, 체육수업에 가장 많이 나타난 목표는 신경근육효율성(94.4%)이고, 가장 적게 나타난 목표는 문화이해 목표(0.0%)이다. 그리고 PPCF의 핵심개념 중 사회적 상호작용의 목표개념요소인 명료화(5.6%), 의태(5.6%), 팀워크(38.9%), 지도성(33.3%), 문화이해(0.0%)목표는 체육수업에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수업과 여학생수업의 목표개념 출현빈도를 비교해 보면, 신경근육효율성, 도전, 관련성, 명료화, 그리고 참여 목표를 제외한 17개 목표개념에서 남학생의 수업이 여학생의 수업보다 그 빈도수가 많았다.

실천적 교육과정에서는 PPCF 목표개념의 출현유무에 대한 백분율이 66%인(전체 2/3일 이상)일 경우 출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자기이해, 도전, 인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그리고 경쟁 목표인 11개 목표개념이 나타났다.

3.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분석

고등학생이 학습상황에서 체육목표에 대해 느끼는 경험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PPCF 목표

개념의 평균(M)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고등학생 전체의 PPCF 목표개념에 대한 평균점수는 9단계 평정척도에서 4~7점수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높게 경험하는 목표개념은 참여 목표(M=6.747)이고 가장 낮게 경험하는 목표개념은 문화이해 목표(M=4.023)이다.

경험적 교육과정에서의 PPCF 목표개념 출현유무는 9단계 평정척도법에 의한 목표개념 경험도 점수가 6(전체 2/3) 이상일 경우 출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움직임의 즐거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팀워크, 경쟁, 그리고 참여 목표인 7개 목표개념이 나타났다.

(1) 성에 따른 목표개념 차이분석

성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 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자기이해, 감정의 정화, 도전, 이동, 관련성, 증량처리, 물체투사, 물체수용, 명료화, 의태, 팀워크, 경쟁, 지도성, 그리고 참여의 18개 목표개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p < 0.01$). 즉, 문화이해를 제외한 모든 목표개념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신체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여학생에 비해 체육목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리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목표의 중요도를 조사한 유정애(1989)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목표의 인식도를 조사한 박명기(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체육목표에 대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Ennis(1985)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2) 학년에 따른 목표개념 차이분석

학년에 따른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유무를 규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움직임의 즐거움, 물체투사(이상 $P < 0.05$), 이동, 표현, 명료화, 지도성, 그리고 문화이해(이상 $p < 0.01$)의 7개 목표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또, 이러한 학년간 경험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난 목표개념에 대해서 사후검증을 $\alpha = 0.05$ 수준에서 실시한 결과, 이동 목표는 2학년과 3학년, 1학년과 3학년에서, 표현 목표는 2학년과 3학년, 1학년과 2학년에서, 명료화 목표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지도성 목표는 2학년과 3학년, 1학년과 3학년에서, 그리고 문화이해 목표는 1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체육목표에 대한 경험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3학년은 기계적 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자기이해, 도전, 이동, 인지, 관련성, 물체투사, 물체수용, 표현, 명료화, 지도성, 참여, 움직임 감상, 그리고 문화이해의 15개 목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3학년의 수업이 체력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유정애(1989), 박명기(1990), Ennis(1985)의 연구와 일치한다.

4.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분석

체육교사가 수업상황에서 어떤 체육목표를 중심으로 가르쳐 왔던가를 살펴보기 위해 PPCF 목표개념의 평균(M)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 체육교사 전체의 PPCF 목표개념에 대한 평균점수는 9단계 평정척도에서 6~8점수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높게 인지하는 목표개념은 참여 목표(M=7.778)이고 가장 낮게 인지하는 목표개념은 문화이해 목표(M=5.778)이다.

인지적 교육과정에서의 PPCF 목표개념 출현유무는 9단계 평정척도법에 의한 목표개념 인지도 점수가 6(전체 2/3)이상일 경우 출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결과, 문화이해 목표를 제외한 21개 목표개념이 나타났다.

(1) 성에 따른 목표개념 차이분석

성에 따른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 22개 목표개념 중 인지목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p < 0.05$). 이 결과는 남녀 체육교사간에 체육목표에 대한 인지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5. 형식적·실천적·경험적·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 비교분석

체육교육과정 영역별 목표개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4개 체육교육과정 영역간 목표개념의 출현유무를 다음과 같이 상호비교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모든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개념은 움직임의 즐거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그리고 경쟁의 5개 목표이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전체 24%를 차지한다. 움직임의 즐거움 목표는 체육교과목의 본질이 신체움직임이고, 현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이 입시위주인 관계로 인해 교실에서 벗어난 운동장에서 실제 몸을 움직이는 수업자체를 중요시하고 즐겁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동 목표는 체육활동 자체가 걷고, 뛰고, 달리면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물체투사 목표는 우리 나라 체육수업 교육과정 내용의 90%가 구기운동이기 때문이다. 경쟁 목표는 체육활동 자체가 스포츠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의 존재는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3개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개념은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자기이해, 도전, 인지, 팀웍 그리고 참여의 8개 목표이다.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자기이해, 도전 그리고 인지 목표개념들은 경험적 교육과정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중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목표는 실제로 거의 모든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사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결여로 인해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이해 목표는

〈표 3〉 체육교육과정 영역간 목표개념 출현의 비교

| PPCF 목표개념 | 영역 | | | |
|-------------|----------|----------|----------|----------|
| | 형식적 교육과정 | 실천적 교육과정 | 경험적 교육과정 | 인지적 교육과정 |
| 1. 심폐효율성 | ○ | ○ | | ○ |
| 2. 기계적 효율성 | ○ | ○ | | ○ |
| 3. 신경근육효율성 | ○ | ○ | | ○ |
| 4. 움직임의 즐거움 | ○ | ○ | ○ | ○ |
| 5. 자기이해 | ○ | ○ | | ○ |
| 6. 감정의 정화 | ○ | | | ○ |
| 7. 도전 | ○ | ○ | | ○ |
| 8. 인지 | ○ | ○ | | ○ |
| 9. 이동 | ○ | ○ | ○ | ○ |
| 10. 관련성 | ○ | | | ○ |
| 11. 중량처리 | ○ | | | ○ |
| 12. 물체투사 | ○ | ○ | ○ | ○ |
| 13. 물체수용 | ○ | ○ | ○ | ○ |
| 14. 표현 | ○ | | | ○ |
| 15. 명료화 | ○ | | | ○ |
| 16. 의태 | ○ | | | ○ |
| 17. 팀워크 | ○ | | ○ | ○ |
| 18. 경쟁 | ○ | ○ | ○ | ○ |
| 19. 지도성 | | | | ○ |
| 20. 참여 | ○ | | ○ | ○ |
| 21. 움직임 감상 | ○ | | | ○ |
| 22. 문화이해 | ○ | | | |
| 계 | 21 | 11 | 7 | 21 |

(註) ○ : 교육과정에 해당 목표개념이 출현된 경우

수업내용의 전달방식 문제로 생각된다. 즉, 체육수업시 대부분의 교사는 수업내용을 전달할 때 물체속도·흐름·운동원리 및 법칙 등의 이론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 보다는 일방적인 시범만 보여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전 목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에 계열성이 없고, Kollen(1981)의 연구결과처럼 체육수업에서의 움직임이 통합된 것의 경험을 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경험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도전하고픈 욕구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중학교에서 농구의 드리블과 패스를 익혔다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술에 의한 팀경기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져야만 내용구성에서의 계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의 학습내용의 범위와 위계 또는 그 난이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인지목표는 자기이해 목표와 유사한 이유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팀워크와 참여 목표는 실천적 교육과정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체육교과의 수업전개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보통 기초체력과 기초기능을 익히고 나면 팀경기나 상호학습이 필요한 수업내용을 제시하여 다른 학

생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실체는 그러하지 못하다. 그것은 기본적인 주당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모든 내용을 다룰 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개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개념은 감정의 경화, 관련성, 중량처리, 표현, 명료화, 의태 그리고 움직임 감상의 7개 영역이다. 이들 7개 목표개념은 실천적 교육과정과 경험적 교육과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문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현장교사들로 하여금 실제 수업지도에 포함토록 요청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들 목표개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험속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현상이다.

1개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목표개념은 지도성과 문화이해의 2개 목표이다. 지도성 목표는 인지적 교육과정에서만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체육교육과정 문서상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과정을 다뤄 지도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업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경험속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이해 목표는 형식적 교육과정에만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무용수업을 수업관찰에서 제외하였고 평소 남학생과 남교사는 무용수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Goodlad(1979)가 결정수준에 따라 분류한 교육과정 영역을 Jwett & Mullan(1977)이 제안한 PPCF 목표개념으로 분석하여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목적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형식적 교육과정에는 지도성 목표를 제외한 21개 목표개념이 출현하고 있다.

둘째, 실천적 교육과정에는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움직임의 즐거움, 자기이해, 도전, 인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그리고 경쟁의 11개 목표개념이 출현하고 있다.

세째, 경험적 교육과정에는 움직임의 즐거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팀워크, 경쟁 그리고 참여의 7개 목표개념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경험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목표개념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학년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학년 학생은 저학년 학생보다 목표개념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네째, 인지적 교육과정에는 문화이해 목표를 제외한 21개 목표개념이 출현하고 있다. 또

한, 인지적 교육과정의 목표개념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체육교사와 여자 체육교사의 목표개념에 대한 인지정도는 차이가 없다.

다섯째, 모든 교육과정에 나타난 체육목표는 움직임의 즐거움, 이동, 물체투사, 물체수용, 그리고 경쟁의 5개 목표개념이다. 3개 교육과정에 나타난 체육목표는 심폐효율성, 기계적 효율성, 신경근육효율성, 자기이해, 도전, 인지, 팀워크, 그리고 참여의 8개 목표개념이다. 2개 교육과정에 나타난 체육목표는 감정의 정화, 관련성, 중량처리, 표현, 명료화, 의태, 그리고 움직임 감각의 7개 목표개념이다. 그리고 1개 교육과정에 나타난 체육목표는 지도성과 문화이해의 2개 목표개념이다. 즉, 현행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복. (1985a). “학교체육교육과정의 개선방향”, 제 4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_____. (1985b). “2000년대의 학교체육”, 2000년대 한국체육스포츠학술세미나. 한국체육대학.
- _____. (1988). “중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개선방향”, 교과교육과정의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 _____. (1988). “체육교육과정의 위상과 과제”, 학교체육, 제 2호.
- 고흥환·김영환·이덕우. (1982). “체육목표의 순위결정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제21권 2호.
- 곽명선. (1989). 「교육과정」. 서울:배영사.
- 김동환. (1988). “체육수업의 관찰방법”, 「학교체육」, 제 2권.
- 김용기. (1988). “교육과정의미에 대한 교사의 지각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종선. (1980).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분석: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사대논총, 제22권. 서울대학교.
- 문호준. (1990). “중학교 체육수업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박명기. (1990). “목표·과정중심 교육과정 모형에 의거한 중학생의 체육목표 인식의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정선. (1987). “무용교사의 무용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연구”:서울·인천·경기지역 중고등학교 무용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정애. (1989). “체육목표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초록. 동아대학교.

- 정미례. (1983).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체육목표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한우택. (1985). “학교체육의 강화”, 제 4 회 국민체육진흥세미나. 한국체육학회.
- Annarino, A.A., Cowell, C.C., and Hazelton, H.W. (1980). *Curriculum Theory and Design in Physical Education*. 2nd ed; St. Louis & Toronto & London: The C.V. Mosby Company.
- Bain, L.L. (1976). “Description of the Hidden Curriculum in Secondary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47, no. 2, pp.154-160.
- Cassidy, R. (1954). *Curriculum Development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Happer & Brothers, Publishers.
- Darst, P.W., Zakrajsek, D.B., and Mancini, V.H. (1990). *Analyzing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Instruction*. 2nd ed.
- Davis, R. (1973). “Writing Behavioral Objectives”, *JOPER*, 44, no. 4, pp.47-49.
- Ennis, C.D. (1985). “Purpose Concepts in an Existing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6, no. 4, pp. 323-333.
- _____. (1990). “Analyzing Curriculum as Participant Perspectives”, *Journal of Teaching Physical Education*.
- Goodlad, J. (1979). *Curriculum Inquiry*. New York: McGraw-Hill.
- Griffin, P.S. (1983). “Gymnastics in a Girl’s Thing: Student Participation Patterns in a Middle School Gymnastics Unit” In T.J. Templin & J.K. Olson (Eds.),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Reading, MA: AddisonWesley.
- Jewett, A.E., and Bain, L.L. (1985). *The Curriculum Process in Physical Education*, Dubuque, Iowa: Wm. C. Brown Publishers.
- Jewett, A.E., and Mullan, M.R. (1977). *Curriculum Design: Purpose and Proces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Washington, DC: AAHPER.
- Klein, M.F. (1982). *State and District Curriculum Guides: One Aspect of the Formal Curriculum*. A study of schooling in the United States. Los Angeles: UCLA School of Education.
- Kollen, P. (1981). “*The Experience of Movement in Physical Education: A Phenomen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Steinhardt, M.A., Jewett, A.E., and Mullan, M.R. (1988). “An Analysis of the Purpose for Engaging in Physical Activity Scale (PEPAS) as an Instrument for Curriculum Research”,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9, no. 4, pp. 339-350.

Wang, B.N.(1977). *An Ethnography of a Physical Education Class: An Experiment in Itergrated Liv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Analyzing Purpose Concepts in Existing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at Selected Secondary Schools

Sinbok Ka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through analysis of the extent to which purpose concepts were present in existing curriculum of physical education at selected secondary schools in Seoul. In order to this purpose, the study was analyzed purpose concepts of curriculum domains and differences of purpose concepts by gender and grade.

Curricula proposed by Goodlad(1979) are divided to focus for decision making of curriculum, and they include the formal, the operational, the experiential, and the perceived domain. Purpose concepts which were used in the study are 22 elements of purpose dimension in Purpose Process Curriculum Framework proposed by Jewett and Mullan(1977).

The subjects and methods of the study were composed of 10 literatures related physical education and content analysis for the formal domain, 18 physical education classes and nonparticipation observation for the operational domain, 712 students and questionnaire investigation for the experiential domain, and 63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questionnaire investigation for the perceived domain from eight different senior-high schools in Seoul.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he subprograms(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and Schéffe test) of the SPSS PC⁺.

On the basis of the results analyzed in this study, conclusion are drawn as follows:

1. 21 purposes excepting leadership were existed in the formal domain.
2. 11 purposes including circulo-respiratory efficiency, mechanical efficiency, neuro-

muscular efficiency, joy of movement etc. were existed in the operational domain.

3. 7 purposes including joy of movement, relocation, object projection etc. were existed in the experiential domain.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experiencing purpose concepts by gender and grade. That is,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in experiencing the purpose concepts than female. Also, upper grad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in experiencing the purpose concepts than lower-grade.

4. 21 purposes excepting cultural understanding were existed in the perceived odmain.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iving purpose concepts between male and femal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5.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t selected secondary schools did not implement desirably. Because only 5 purposes(joy of movement, relocation, object projection, object reception and competition) were existed in each of the four curriculum domains.